



임춘도 지났건만...눈발에 추위 매섭네

광주·전남지역에 매서운 겨울 바람과 함께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9일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軍 공항 등 5개 군사시설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31사단·보병학교 평동훈련장·마북동 탄약고〉

광주·전남 ‘갈등의 불씨’ 되나

전남도의회, 이전 반대 특위 구성 ... 상생 분위기에 ‘찬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등 광주지역 군사시설 이전 문제가 모처럼 상생 분위기를 타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시·도의회까지 군 공항 이전 등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상생이 아닌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 양상도 우려된다.

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광주 군 공항 등 광주군사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광주 군사시설 반대특위)를 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양 시·도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하면서 민선 6기들어 활발하게 추진중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구도를 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 소속 정영덕(민주·무안 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난해 12월14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광주시의 ▲군 공항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보병학교 평동훈련장 ▲마북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5곳을 전남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의회는 위원 10명을 선임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 군사시설 반대특위는 이 기간 중 광주 군사시설의 전남 이전 반대 대책을 수립하고 전남도 대응단을 꾸리는 한편 광주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시·군 행정협의 회 및 범도민대책위 구성 등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 같은 특위 구성은 양 시·도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군사시설 반대 특위가 꾸려진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다.

이처럼 도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으로 나선 배경에는 광주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단을 별도로 만들고, 광주시의회도 최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위를 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등 광주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양 시도 뿐 아니라 의회 간 헝거투기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최권일·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대면조사 구걸 하지 않겠다”

특검, 강경 입장 선회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특검과 대통령 측의 재협상 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면〉

현재로서는 대통령 측의 일방통보식 조사 거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최대한 강하게 조사 필요성을 압박하는 의미가 커 보인다.

지난 7일 한 방송에 ‘9일 대면조사’ 방침이 보도되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을 ‘유출’ 주제로 지목하고 연거푸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면조사 관련 협상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검이 자체적으로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논란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향후엔 대통령 측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원칙론’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牛牛” 구제역 초비상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 가축시장 18일까지 폐쇄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열어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구제역이 충북 보은(2건),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하고, 구제역 유행 가운데 처음으로 ‘O형’, ‘A형’이 처음으로 동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가 확대 설치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전남도내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등 14개 시·군 15개를 비롯한 전국 86개 우제류 가축 시장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된다. 이 기간 동안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된다. 당국은 필요시 폐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도 연천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관리가 실시된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이 9일 오후 6시부터 16일 0시까지 7일간 금지된다.

당국은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확대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월 10일, 15일) 운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매몰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되지 않는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지역인재 35% 이상 뽑아야

비정규직 정원의 5% 이내로

공공기관은 올해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노력하고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청년인턴이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내 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 획득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은 정원 5% 이내에서 필요최소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정 처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인력운영 방안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책임 하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2.0%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재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11.4%에 불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 3. 28(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명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